

- 또한,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회사 및 인프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, **업무연속성계획(BCP: Business Continuity Plan)**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.
- 아울러, 코로나19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**전세계의 문제**이기 때문에, 무엇보다도 **국제공조**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.

3. 주요 발언 내용

- 금융위원회(손병두 부위원장)는 한국의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임을 설명했습니다.
 - 코로나19 확산 초기 금융시장에 일부 변동성이 있었으나,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의 신속한 노력으로 초기 변동성이 안정화되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.
- 또한, 한국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크게 3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.
 - 첫째, 한국 정부의 선제적 방역 노력을 소개하면서, 최근 시장 변동의 근본 원인이 코로나19에 있음을 감안할 때 방역이 가장 핵심적인 대책임을 강조했습니다.
 - 둘째, 소상공인·중소기업 등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마련, 추가 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, 코로나19가 실물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.
 - 셋째, 코로나19가 금융권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비하여,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업무연속성계획을 마련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.
- 끝으로, 국가간 정책공조 없이는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어려움을 상기시키며, FSB 운영위원회를 금융분야 정책 공조를 위한 핫라인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고, 이는 각국의 지지를 받았습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
--	--	---	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